日, 역병신 물리친 간산대사 재조명

진다이지, 내년 도쿄국립박물관서 특별전시

박영빈 객원기자

천여년전 역병이 돌던 시대에 역병을 몰아내기 위해 스스로 악귀로 나툰 스님이 있다. 일본 천태종의 18대 종정으로 교와 선에 통달했던 간산대사 료겐(元三大師 良源. 912-985)이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본에선 간산대사에 대한 신앙이 재조명되고 있다. 또한 사찰에서 문외불출이었던 간산대사상이 205년 만에 외부에서 공개되는 등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아사히신문' 은 간산대사에 대한 현대의 신앙을 특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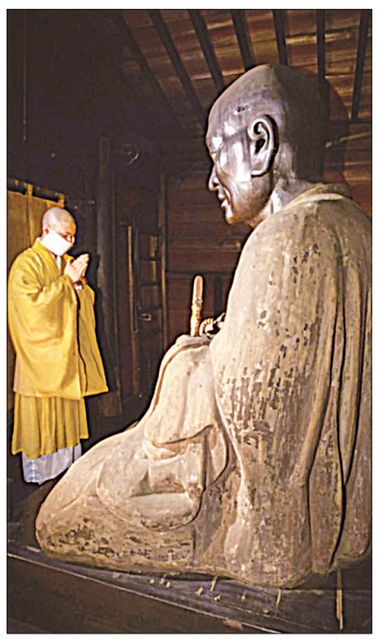
간산대사와 역병의 이야기는 대사의 전기에 실려 전한다. 어느 시기 일본에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 나갔다. 이윽고 역병을 옮기던 역병신이 간산대사 앞에 나타나 대사의 몸에 침입했다. 오한과 고열을 느낀 대사는 법력으로 역병신을 쫓아냈으나 곧 중생들을 병고에서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내었다.

대사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큰 거울을 걸어두고 이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라고 명했다. 곧바로 깊은 선정에 든 대사의 모습이 거울에 비췄으나, 그 모습은 머리에 긴 뿔이 돋고 팔다리가 길게 뻗고 비쩍 마른 악귀의 모습이었다.

대사는 제자들이 그려낸 그림을 모본으로 목판으로 찍어내 집집마다 문에 붙

1000여년전 중생구제 위해
악귀로 변신해 역병 물리쳐
코로나 시국 속 재조명되며
205년만에 외부에 공개예정
쿄쿠센지, 초상 2만장 배포

이도록 명했다. 그러자 역병이 곧 소멸하고, 다른 액운과 병고들도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간산대사에 대한 신앙은 일본전역에 퍼져 중세에는 간산대사의 초상을 붙이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였다고 전한다.



205년만에 산문 밖에서 공개될 예정인 간산대사상.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최근 코로나19가 다시금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에선 간산대사에 대한 신앙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야마가타(山形)현에 소재한 신사인 쿠마노타이샤(熊野大社)에선 지난해 말 중세에 사용하던 간산대사의 초상 목판이 발견돼 신사에서 복각해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부 불자들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된 것과 맞물려 "다가올 병고를 막고자 대사님이 나투신 것"이라며 신비로워했다.

간산대사의 탄생지에 건립된 쿄쿠센지(玉泉寺)도 코로나19 시국을 극복하고자 지난 3월 중세의 초상을 복각했다. 전국에서 주문이 폭주하여 약 2만장 이상이 배포됐다.

간산대사에 대한 신앙이 고조되는 가운데, 205년 만에 산문 밖을 나서는 간산대사상도 있다. 도쿄에 소재한 고찰 진다이지(深大寺)에 봉안된 간산대사상은 높이 2m의 거상으로 일본최대의 승상으로 꼽힌다. 50년에 한 번 대중에게 공개되며, 지난 3월 특별공개를 앞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지됐다. 그러나 진다이지 측은 내년 가을 도쿄국립박물관에서 특별공개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간산대사상이 산문 밖에서 공개되는 것은 205년 만이다.

진다이지는 "코로나 시국을 떨쳐내고자 대사상의 공개를 원하는 문이 많은 것으로 안다. 신심으로, 또 진귀한 문화재를 감상하려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日 무인사찰서 도난사건 증가 우려

불상 훔친 범인 체포 해
문화재급 불상들도 환수



무사히 환수된 불상들, 모두 문화재급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일본에서 최근 성보 도난 사건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로 상주하는 사람이 없는 빈 사찰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보시금이나 불구는 물론 본존불이나 범종과 같은 성보들마저 도난을 당해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도난 된 불상들을 기적적으로 되찾는 기쁜 소식도 들려온다. 11월 17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은 도난당한 문화재급 불상들을 되찾은 소식을 보도했다.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경찰은 지난 17일 무인사찰에서 불상을 훔친 56세의 범인을 체포, 도난당한 불상 7구를 무사히 환수했다고 밝혔다. 도난당한 불상들은 여래상 3구, 보살상 3구, 명왕상 1구로 모두 문화재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지난 9월 하순부터 사이타마 현과 이웃한 토치기(栃木)현 등 4곳의 사찰에서 불상을 훔친 것으로 진술했다. 이중 대부분이 무인사찰로 방범이 허술 했으며, 특히 사찰의 구조상 CCTV등의 설치가 어려운 곳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인이 체포되었단 소식에 "사람들의 기원을 들어주던 부처님을 훔쳤으니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범인은 현재 거주지 불명의 무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불상이 고미술로 고가에 거래됨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훔친 불상들 중 지금까지 6구를 고미술상이나 고물상등에 매각했고, 최근 훔친 불상을 매각하기 위해 관련 상점들을 돌던 중 덜미가 잡혔다. 범인의 진술에 따라 지금까지 매각됐던 6구의 불상도 모두 무사 회수됐다.

범인은 고액에 매각하기 위해 문화재급의 불상, 혹은 본존불급의 불상만을 골라 훔친 것으로 진술했다. 파손된 불상은 값을 받기 어렵기에 그대로 버려두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범인은 "이렇게 빨리 잡힐 줄은 몰랐다. 천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문화청의 통계에 따르면 사이타마현에는 약 2200개소의 사찰이 있으며 이중 무인사찰도 상당수 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측은 무인사찰에 대해 단순 잠금장치 외에 방범부저나 야간조명, 관리인 지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서 훼불로 몸살 앓는 베트남 불교계

불상 훼손 사건만 6건
경찰, 혐오범죄로 간주

최근 미국 오렌지카운티주(州) 인근 지역에서 훼불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한달 간 이 지역에서만 6차례 발생했다. 지역 경찰은 이를 중대한 혐오범죄로 간주, 수사에 착수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The Los Angeles Times) 등 외신이 11월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오렌지카운티주 산타 아나시(市)에 위치한 흐엉 틱(Huong Tich) 사찰의 불상 15개가 훼손됐다. 신원미상의 용의자들은 이 불상들에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예수' 등의 글자를 적고 달아났다.

유년 시절부터 이 사찰에 다녔다는 타이 비엣 판(Thai Viet Phan) 산타아나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단순히 사원 무단침입과 기물파손을 넘어선 사건"이라며 "베트남계 미국인 불교 공동체를 겨냥한 증오 범죄이며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 최초의 베트남계 미국인 시의원으로 활동중이다.



미국 오렌지카운티주(州) 인근 지역에서 훼불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출처=LA타임즈

마찬가지로 훼불 피해를 입은 오렌지카운티주 가든 그로브(Garden Grove)시의 다이에드레 응 우옌(Diedre Nguyen) 시의원도 해당 기자회견에서 "증오범죄가 지역사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매우 우려가 된다"며 "평화와 숭배의 장소에서 수천 달러 규모의 훼불 사건이 자꾸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이 계속 보도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까봐 두렵다"며 "하지만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신원미상의 여성 2명으로 좁히고 수배 중이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두 여성은 지난 23일 Huong Tich 사원에 무단침입한 뒤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불상을 훼손하다가 CCTV에 포착됐다. 두 여성은 마스크를 쓰고 어두운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 한 여성은 파란색 비니를, 또 다른 여성은 검은색 비니를 착용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5건의 불상 훼손 사건 용의자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두 여성을 수배 중"이라며 "최근 오렌지카운티주 내 산타아나시에서 2건, 가든그로브시에서 3건,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시에서 1건의 훼불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검정색 스프레이 페인트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웨스틴민스터시에서 피해를 입은 듀 응우(Dieu Ngu) 사원 관계자는 "재산상의 피해는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며 "이는 증오범죄로 우리 공동체의 종교 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한편 오렌티카운티주가 최근 발표한 2019 증오범죄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주에서 증오범죄 비율이 2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5년 연속 증가 추세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반감이 계속되면서 증오범죄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승려, 야생 코끼리 습격 받아 사망

탁발 나섰다가 봉변

태국에서 한 승려가 지난 24일(현지시간) 탁발을 가던 중 야생 코끼리에 밟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CTN뉴스 등 외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함몰된 승려의 시체를 발견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스님은 프라 솜번 번왓(Phra Sombun Bunwat · 64)으로 태국 북동부 야소톤(Yasothon)주(州)에 위치한 왓 수망칼라람(Wat Sumangkhlaram) 사원에 주석 중이다.

스님은 국립공원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외진 풀밭에서 발견됐다. 스님은 심각한 안면 훼손과 다리 골절, 두개골 함몰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지역 경찰은 "스님이 탁발을 위해 사원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야생 코끼리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스님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전했다.



태국 국립공원 인근에서 탁발을 가던 스님이 야생코끼리에 밟혀 숨졌다. 사진출처=CTN뉴스

한편 태국에서는 야생 코끼리에게 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동부에 위치한 촌부리(Chon Buri)주(州)에서 중년 여성이 고무나무 채집 중 야생 코끼리에 밟혀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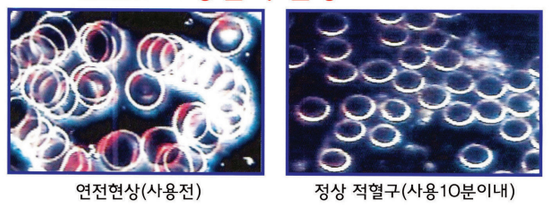
박정현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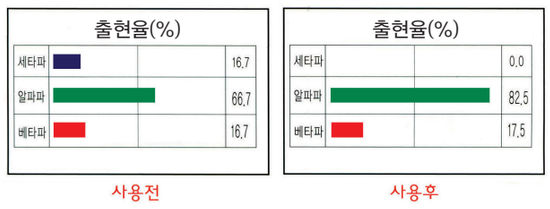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 : 120g 1개 40,000원
BLOOD MATE® 순비누 : 120g 1개 20,000원
ORAL MATE® 치 약 : 120g 1개 21,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